

# 청동 투구를 쓴 소년



소윤경 지음 / 봄별

손기정의 올림픽 도전기, 그 안에 담긴 평화의 메시지  
손기정 선수가 올림피아 제전 승리의 상징이었던 청동 투구를 품에 안기까지, 마라톤보다 더 길고 극적인 시간을 담은 그림책. 불꽃에서 탄생한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는 같은 시기 마라톤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마라톤 별판을 달리던 병사는 압록강 변을 달리던 소년 손기정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 올림픽까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소중한 가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제	작품에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소개하는 자료 만들기
권장 차시	6차시
대상 학년	5~6학년
관련 주제어	청동 투구, 마라톤, 손기정, 국립중앙박물관, 올림픽, 평화, 자유

교육 과정 연계	<b>국어</b>
	[6국03-02]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글을 쓴다.
	[6국01-05]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작성	창원한들초등학교 박정윤 선생님
----	------------------

##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뜨거운 별판을 달리고 거친 풍량을 넘어 이어지는 세 이야기

우리 민족의 평화에서 우리 세계의 평화로, 올림픽에 벅 삼기 좋은, 맑고도 짙은 그림책

《청동 투구를 쓴 소년》은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 올림픽까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야기는 크게 세 줄기로 나뉜다. 첫째로 고대 그리스에서 탄생한 청동 투구다. 뜨거운 불 속에서 만들어진 청동 투구는 신에게 바치는 승리의 상징, 용감한 자에게 허락된 물건이지만, 그렇기에 긴 세월 동안 전쟁의 참혹한 광경을 목도한다. 뒤이어 뜨거운 마라톤 별판을 달리는 병사가 등장한다. 병사는 아테네까지 40여 킬로미터를 달려 페르시아 전쟁에서의 승전 소식을 전하고 숨을 거둔다. 훗날 ‘마라톤’이라는 스포츠 명칭의 유래가 되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다. 마지막, 고대에서 현대로 넘어와도 여전히 누군가는 뜨거운 별 아래 달리고 있다. 압록강 변을 달리는 소년, 바로 손기정이다. 손기정은 여러 수모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당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손에 넣는다.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의 탄생은 같은 시기 마라톤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마라톤 별판을 달리던 병사는 압록강 변을 달리던 소년 손기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첫 번째 줄기와 세 번째 줄기인 청동 투구와 손기정이 이어지는 과정은 순탄치 않다. 청동 투구는 본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에게 부상으로 주어져야 했지만, 손기정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그 사실을 안다. 베를린 올림픽으로부터 50년이 지난 1986년이 되어서야 청동 투구는 제 주인을 찾는다. 손기정은 ‘이 투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를 국립 중앙 박물관에 기증하였고, 청동 투구는 1987년에 보물 제904호로 지정된다.

## ■ 학습 목표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인상적인 장면과 소감을 말할 수 있다.
- 작품에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 수 있다.
-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

## ■ 수업 준비

본 교안은 5~6학년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글밥이 많지 않은 그림책이지만 상징적인 표현과 ‘작가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궁금한 장면이 여러 군데 보인다. 장면을 충분히 감상하고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면 깊이 있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인물과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관심있는 관련 주제를 선택하여 조사하고 공유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 참여와 협력이 일어나도록 교안을 구성하였다. 독서 경험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고 정보를 생산하며 바람직한 가치를 내면화하길 바란다. 학급 상황에 따라 사회, 도덕,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활용해 볼 수도 있다.

**수업 준비물** 활동지, 색연필, 색씨인펜, 스마트 기기 등

## ■ 학습 과정

읽기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마음 열기 표지 살펴보기	2
읽는 중	함께 읽기 -함께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 -그림 읽기 소감 나누기	
읽은 후	책 표지 디자인하기	1
	더 알고 싶은 내용 조사하기	1
	포스터 만들기	2

### 읽기 전

#### 1. 마음 열기

##### ■ 누구일까요?

- 사진 속 인물을 알아맞혀 봅시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손기정



메달을 딴 선수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울한  
표정을 지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손기정



50년 만에 찾은 청동  
투구를 들고 있는  
손기정



88서울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뛰고 있는 손기정

- 손기정 선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일제강점기 때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땀다.

시상대에서 유니폼에 있는 일본 국기를 월계수 나무로 가렸다.

## 2. 표지 살펴보기

### ■ 겉싸개 그림으로 이야기 나누기

- 겉싸개에서 보이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 남자 아이들이 달리기를 해요. 달리는 모습이 다 달라요.  
달리는 소년들의 뒷모습과 옆모습을 그렸어요.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 ■ 가려진 제목 예상하기

- 그림에 어울리는 제목을 예상해 봅시다.  
예) 달리는 소년들, 마라토너 등

### ■ 질문 만들기

- 겉싸개를 펼쳐보고 궁금한 것을 질문해 봅시다.  
예) 청동 투구는 어떻게 생겼을까?  
소년은 왜 청동 투구를 쓰고 달렸을까?  
손기정 선수의 어렸을 적 이야기일까?  
다섯 명 중 청동 투구를 쓴 소년은 누구일까?  
조국의 희망이 되었던 한 소년은 손기정 선수를 말하는 걸까?

### ■ 표지 살펴보며 내용 예상하기

- 겉싸개와 표지 전체를 살펴보며 어떤 내용일지 예상해 봅시다.

### ■ 속표지 살펴보기

- 무엇이 보이나요?  
예) 사람들이 청동 투구 전시를 구경하고 있어요.

Tip. 이 책은 겉싸개가 있는 그림책으로 겉싸개와 표지 그림이 다르다. 민트색 겉싸개를 벗기면 진한 네이비 바탕에 청동 투구가 그려진 표지가 나온다. 표지 살펴보기는 겉싸개 그림으로 이야기 나누는 뒤, 겉싸개를 벗겨내고 표지를 보며 그림책에 대한 호기심을 이어간다. 제목이 ‘청동 투구를 쓴 소년’인데 겉싸개에는 청동 투구를 발견할 수 없다. 겉싸개를 벗기면 드러나는 청동 투구의 모습에 어떤 이야기일지 관심을 갖게 된다.

## 읽는 중

### 1. 함께 읽기

#### ■ 함께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

- 청동 투구는 언제, 어디에서 만들어졌나요?  
예) 2600년 전 그리스
- 전쟁에 나간 청동 투구는 무엇을 보았나요?  
예) 인간들이 서로 빼앗고 죽이는 모습
- 그리스 병사는 왜 40여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뛰었나요?  
예)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 마라톤 별판에서 뛰고 목숨을 잃은 그리스 병사의 몸은 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체 모형처럼 그렸을까요?  
예) 전쟁 때 그저 하나의 병기로 쓰이고 부서져야 했던 고대 병사의 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인체 모형이나 로봇처럼 표현한 것 같아요.
- 1920년대 신의주 압록강변을 달리던 소년은 누구일까요?  
예) 손기정 선수일 것 같아요.
- 마라톤에 참여한 선수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예) 무더위, 두통, 맞지 않는 운동화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기권했어요.
- 소년은 어떤 생각을 하며 힘든 마라톤을 견뎠을까요?  
예)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꿈을 키워 온 지난날들, 고달프게 살아가는 조국의 사람들, 어머니
- 손기정 선수는 금메달을 따고도 왜 고개를 숙이고 월계수 나무로 가슴을 가렸을까요?  
예) 자신은 조선인인데 일본 국가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여 일장기를 가슴에 붙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장기를 가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 손기정 선수는 어떤 표정,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 침울한 표정, 슬픈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나라 잃은 서글픔을 느꼈을 것 같아요.  
'당당한 조선인으로서 시상대에 올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 동메달을 딴 남승룡 선수는 왜 고개를 떨구었나요?  
예) 가슴에 단 일장기를 가리지 못했기 때문일거예요.
- 청동 투구가 본 것은 어떤 전쟁일까요?  
예) 독일 나치 문양을 보니 2차 세계대전인 것 같아요.
- 청동 투구의 새 주인은 누구였나요?  
예) 손기정 선수예요.
- 청동 투구는 베를린 올림픽이 끝나고 50년 동안 어디에 있었나요?  
예)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 1896년, 50년 만에 청동 투구를 받은 손기정 선수는 뭐라고 말했나요?  
예) "이 투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것입니다."
- 현재 손기정 선수의 청동 투구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예) 국립중앙박물관

## ■ 그림 읽기

- 장면에서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 무엇을 그린 장면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이어질 장면을 예상해 봅시다.
- 그림의 특징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얇은 색연필로 촘촘하게 색칠한 것 같아요.  
강렬한 색으로 그렸어도 그라데이션을 넣어 색칠해서 은은하고 색감이 예뻐요.  
달리는 동작을 다양하게 역동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사람들의 표정을 거의 그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피부색과 머리 색깔이 각양각색이에요.  
피부색으로 어울리지 않는 파란색과 초록색을 썼는데 이상하지 않고 개성있어요.

- 왜 작가는 달리는 사람들의 표정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예) 독자가 달리는 사람들이 어떤 표정일지 상상하며 읽으라는 의도 같아요. 표정을 다 그려 넣으면 상상하며 읽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표정보다 달리는 사람들의 동작에 집중하라고 일부러 표정을 그리지 않은 것 같아요.

- 작가가 표정을 그린 장면은 어디인가요?

예)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결승선 테이프를 끊는 장면과 청동 투구를 돌려받으며 머리에 얹고 기뻐하는 장면에서 표정을 그렸어요.

- 왜 그 장면만 표정을 그려 넣었을까요?

예) 두 장면 다 기쁨과 환희가 느껴지는 극적인 장면이라 표정을 넣은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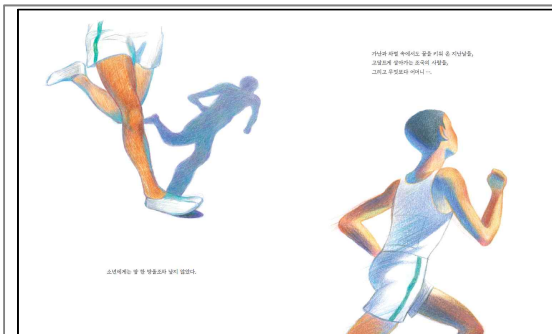
Tip.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조화를 이뤄 내용을 전달한다. 그림으로 다 그리지 못한 것은 글이, 글로 다 쓰지 못한 내용은 그림이 표현한다. 그림 읽기는 정답이 없으며 독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그림에 깃든 작가의 의도를 짐작해보고 그림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느낌을 자유롭게 나누다 보면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2. 소감 나누기

### ■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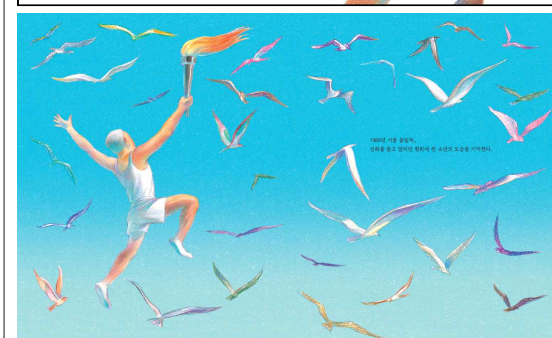
- 인상적인 장면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소년에게는 땀 한 방울조차 남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뛰는 모습을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성화를 들고 하늘로 경총 뛰어오르는 손기정 선수의 모습을 그린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베를린 올림픽 때는 금메달을 따고도 나라를 잃은 서글픔에 기쁘지만은 않았을텐데 서울올림픽 때는 기쁨과 자유를 느꼈을 것 같아요.

### ■ 인물에게 본받을 점 찾기

- 손기정은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손기정에게 본받고 싶은 점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예)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짐작하기도 어려워요. 특히 마지막 100미터 기록이 11초라니 인내심과 의지가 대단한 사람 같아요.

애국심이 남다른 것 같아요.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에게 부상으로 주는 청동 투구를 나라에 기증했

잡아요.

서울올림픽 때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 걸 보니 자기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아마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 ■ 소감 나누기

- 이 그림책에서 느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예) 평화, 자주, 자유, 최선, 인내

- 책을 읽은 소감을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

예) 손기정 선수와 청동 투구를 통해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몰랐던 역사적 사실과 유물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어 재미있었어요. 더 알아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전쟁이 없다면 청동 투구도 만들지 않았을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은 손기정 선수와 청동 투구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청동 투구의 입장에서 본 역사이야기 같기도 해요. 청동 투구가 태어난 과정과 그리스 전쟁, 제2차 세계대전, 현재의 위치까지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 읽은 후

### 1. 책 표지 디자인하기 [활동지 2] 활용

#### ■ 제목 새로 짓기

- 그림책의 제목을 새로 짓는다면 어떻게 바꾸어볼까요?

예) 역사의 증인, 청동 투구

청동 투구의 긴 여행

마침내 주인에게 돌아간 청동 투구

청동 투구가 어쩌다 박물관에 왔을까?

#### ■ 표지 디자인 하기

- 그림책에 어울리는 표지 디자인을 해 봅시다.

- 배경색을 고르고 제목을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배치할지 생각해 봅시다.

- 뒤표지에는 그림책에 나오는 인상적인 문장 또는 그림책을 한 마디로 소개하는 문구를 넣어 봅시다.

Tip. 표지 디자인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도 있지만 그림책 속 인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장면을 활용하여 수정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2. 더 알고 싶은 내용 조사하기 [활동지 1] 활용

#### ■ 정보 탐색하기

- 손기정과 청동 투구에 대해 알아보시다.

 손기정 청동 투구	 역사채널e 손기정	 KBS역사저널 손기정
국립중앙박물관>소장품> 손기정 기증 청동투구	역사채널e_슬픈 우승(손기정)	KBS역사저널 그날_1936년 8월 9일, 손기정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수상

Tip. 체험학습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손기정 기념관 및 체육 공원을 방문하여 유적을 답사한다면 책 내용뿐만 아니라 인물과 역사에 대해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꼭 현장체험학습이 아니라도 온라인 누리집에 많은 자료가 있으니 활용해 보자.

- 국립중앙박물관([www.museum.go.kr](http://www.museum.go.kr))\_소장품검색\_손기정 기증 청동 투구
- 손기정 기념관([www.sonkeechung.com](http://www.sonkeechung.com)) • 손기정 체육공원

#### ■ 더 알고 싶은 내용 조사하기

- 그 밖에 그림책을 읽으며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 더 알고 싶은 주제를 정해 조사해 봅시다.

예) 마라톤의 기원과 특징, 규칙

올림픽의 유래와 역사, 종목

관심있는 스포츠 및 스포츠 정신

손기정 선수의 생애와 업적

남승룡 선수의 생애와 업적

청동 투구 반환 과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중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소장품 소개


- 조사 방법과 자료의 출처, 조사 내용, 느낀 점도 써 봅시다.

#### ■ 조사한 내용 발표하기

- 조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해 봅시다.

예)

알고 싶은 내용	청동 투구
이미 알고 있던 내용	전쟁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 투구를 썼다
조사 방법	온라인 검색_국립중앙박물관
알게 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구는 손기정 선수가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메달과 함께 부상으로 받게 되어 있었지만, 당시에 전달되지 못한 채 베를린박물관에 50여 년간 보관되어 있었다.</li> <li>■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에게 그리스가 유물을 주는 관행은 제2회 파리 올림픽(1900년)부터 실시하여 고대 유물의 유출 방지령이 내려진 2차 세계대전까지 계속되었다.</li> <li>■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아마추어 선수에게는 메달 이외에 어떠한</li> </ul>

	<p>선물도 공식적으로 수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손기정에게 이 투구를 수여하지 않았다. 손기정은 마라톤 우승자에게 메달 이외에 수여될 부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귀국하였다. 당시 일본은 식민지 출신 우승자의 권리를 대변할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손기정 선생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거나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건의하지 않았으며, 결국 이 사실은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여 년이 지나서야 손기정 선생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투구가 독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반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투구의 설명판에는 ‘그리스 코린트 시대의 투구 / 마라톤 승자를 위해 아테네의 브라디니 신문사가 제공한 기념상 /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1936년 / 손기정(손기정의 일본어 표기) / 일본 / 2시간 29분 19초’라고 독일어로 명시되어 있었다.</li> <li>■ 투구를 반환받기 위한 노력은 그 후 10여 년간 계속되었다. 1986년 베를린 올림픽 개최 50주년을 기념하여 독일올림픽위원회에서 마련한 기념행사에서 투구를 손기정 선생에게 헌정하기로 하면서 반환받게 되었다.</li> <li>■ 50년 만에 주인의 손에 돌아온 그리스 투구는 비록 외국의 유물이기는 하지만 2천 6백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기에 우리 민족의 긍지를 높여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의 부상품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1987년 서구 유물로는 처음으로 보물(옛 지정번호 보물 제904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손기정 선생은 ‘이 투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것’이라는 뜻을 밝히고 1994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될 수 있도록 국가에 이 투구를 기증하였다.</li> </ul>	
<p><b>조사 후 느낀 점</b></p>	<p>다른 나라의 유물이 우리나라의 보물로 지정된 사연을 알게 되어 의미가 있었다. 손기정 선수가 자신이 부상으로 받은 투구를 나라에 기증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고맙다.</p>	

<p><b>알고 싶은 내용</b></p>	<p>일장기 말소 사건</p>
<p><b>이미 알고 있던 내용</b></p>	<p>일제강점기 때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해 금메달을 땀다.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 선수 자격으로 참여했다.</p>
<p><b>조사 방법</b></p>	<p>온라인 지식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p>
<p><b>알게 된 내용</b></p>	<p>1936년 8월 25일 자 《동아일보》 2면에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 선수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그 유니폼에 그려진 일장기를 없애버린 일. 이것을 일본 관헌이 발견하고 문제 삼는 사건이 발생함.</p>

	<p>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동아일보』는 8월 29일 자로 무기 정간 처분을 당함. (정간: 신문이나 잡지 따위의 정기 간행물의 간행(인쇄하여 발행)을 감독 관청의 명령으로 일시 중지함.)</p>  <p>[사진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p>
<p><b>조사 후 느낀 점</b></p>	<p>신문사에서 일본 국기 모양을 지우고 신문을 발행한 것은 간접적으로 일제에 대항한 것이다.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정말 슬프고 억울한 일이다.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p>

- Tip. 학생들이 주제를 고르기 어려워할 때는 교사가 몇 가지 예를 들어 제시한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짝 또는 모둠 활동으로 해도 좋다.  
**【활동지1】**을 활용해 보자. 학급 상황에 따라 조사학습지에 들어갈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가정연계학습 및 과제로 미리 집에서 조사할 수도 있고, 도서관이나 컴퓨터실을 이용하거나 학습용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관련 책과 자료를 찾아보자. 온라인에서 찾은 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밝히고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기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찾은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한 후 요약 정리할 수 있게 한다.

### 3. 포스터 만들기

#### ■ 포스터 만들기

- 그림책을 읽고 느낀 점과 조사하기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여 게시물을 만들어 봅시다.
-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공유해 봅시다.

예) 온라인 디자인 툴을 활용하여 게시물(카드뉴스 등)을 만들고 학급누리집 또는 SNS에 게시하기  
 인물역사신문 포스터(활동지, 이젤 패드, 도화지 등 활용) 만들고 갤러리워크로 감상하기

#### ■ 작품 감상하기

-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잘한 점을 칭찬해 봅시다. 응원 댓글을 달아봅시다.

Tip. 학생들의 수준과 학급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제작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예) 온라인 디자인 툴로 만든 게시물: 청동 투구가 들려주는 손기정 이야기

①

청동투구가 들려주는  
손기정의 이야기



②

청동투구가 들려주는  
손기정의 첫 번째 이야기 (베를린 올림픽)

손기정은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  
에 재능이 있어 학교에서도 육  
상선수로 활약 했었다. 많은  
대회에서 우승한 손기정은 결  
국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할 기  
회를 얻는다. 거기다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따게 된단다  
하지만 손기정이 행복한 건  
아니었다.

일장기를 달고 일본식 이름  
으로 불리며(기테이 손),기미가요를 듣  
는 최악의 시상식이었지...



③

청동투구가 들려주는  
손기정의 두 번째 이야기  
(일장기 말소사건)



손기정이 금메달을 따고난 후  
시상식 날 손기정은 월계수잎으로  
옷에 있는 일장기를 가렸단다.  
하지만 일장기를 완벽히 가리진  
못했지. 한편 동아일보에선  
손기정이 금메달을 땀다는 소식에  
신문을 만들어 퍼뜨렸단다.  
하지만 이내 신문 만드는 걸  
멈추게 되었지.

왜냐하면 손기정 옷에 새겨진  
일장기가 지워졌기 때문이었다.  
결국 동아일보는 수 개월간 정간되었지.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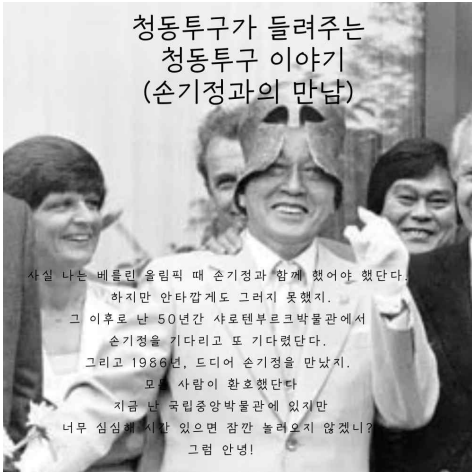
청동투구가 들려주는  
손기정의 세 번째 이야기  
(보스턴 마라톤, 바르셀로나 올림픽)



손기정은 일장기 말소 사건 이후,  
일본 경찰들이 계속 감시하고 동아일보 기자  
들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손기정은  
더이상 마라톤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마라톤을 너무나 사랑했던  
손기정은 코치로써 큰 활약을 했다.  
서윤복, 함기용, 황영조 이 세 사람을  
훌륭한 마라토너로 키워내 세 사람  
모두 시상대에 오르게 만들었거든.  
(서윤복, 함기용 보스턴 마라톤)  
(황영조 바르셀로나 올림픽)

⑤

청동투구가 들려주는  
청동투구 이야기  
(손기정과의 만남)



사실 나는 베를린 올림픽 때 손기정과 함께 했어야 했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  
그 이후로 난 50년간 샤로텐부르크박물관에서  
손기정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단다.  
그리고 1986년, 드디어 손기정을 만났지.  
모든 사람이 환호했단다  
지금 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지만  
너무 심심해 시간 있으면 잠깐 놀러오지 않겠니?  
그럼 안녕!